한전 광주·전남본부 소속 김희성(49·가운데) 차장·송화태(52·왼쪽) 과장·문병규(52) 과장 등 3명이 9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급전소 사무실에 설치된 전력 계통도를 살펴보며 변전소의 전기 비축 상황과 예비율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분 1초도 긴장을 풀 수 없어요"

폭염에 전력 사용량 최대 … 한전 농성동 급전소 비상체제

발전소 8곳·변전소 64곳 전력공급 상황 24시간 감시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 속, '1분 1초'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폭염때문에 누구보다 더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주인공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직원들이다. 이들은 찜통 더위에 에어컨·냉장고·선풍기 등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9일 오후 1시4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전 광주·전남본부 송변전사업실 6층 송전계통팀 급전소. 김희성(49) 차장·송화태(52) 과장·문병규(52) 과장 등 3명이 사무실 책상에 설치된 10대의 모니터와 가로 7m·세로 2.5m 크기의 전력 계통도를 번갈아 살펴보고 있었다.

계통도에 표시된 광주 충장변전소의 최대 전력공급용량 수치가 점점 오르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30분 뒤 최대 전력공급용량이 '3만9000kW'에서 멈춰서자 직원들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대 전력공급용량이 6만kW인데, 이를 초과할 경우 과부하로 정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3명씩 3개 조로 나눠 관할 8곳의 발전소와 62개 변전소의 전력 공급(전기 비축 상황과 예비율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여부를 24시간 감시·운영한다.

한전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9시 광주·전남 전력 사용량은 435만kW를 기록했다. 이는 올 여름 최대 수요전력 수치다. 지난해 여름 피크 타임 최고치는 414만kW(8월 19일).

송 과장은 "그나마 이달 초까지는 휴가철이라 전력 사용량이 적은 편인데, 문제는 이번 주 부터"라며 "태풍·낙뢰로 인한 정전사고가 많은데, 이달 말까지는 하루 하루 긴장된 여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낮 12시45분께 북구 오치동 한전 광주·전남본부 고객센터. "광주교육대학교 앞인데요. 변압기에서 연기가 나요." 한 제보자가 건 전화였다. 상담원이 컴퓨터에 전화번호·이름 등을 입력한 뒤 25개 지역사업소 중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연결, 응급반을 출동시켰다. 접수받은 지 1시간30분 만에 정상복구됐다.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접수된 고장 등 신고건수는 모두 3938건. 지난달 하루 평균 접수건수는 3965건이었다. 이곳에는 60명의 요원들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낙뢰로 인한 설비 고장 등 다양한 민원을 접수받는다.

한편, 한전은 이날부터 21일까지 2주간 여름철 전력사용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전력수급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물 사용량도 최대

광주 지난 5일 53만4000t 썼다

올 여름 '살인적인 무더위'로 물 사용량도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 광주지역 전력사용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5일 물 사용량도 53만4000t으로 지난 2006년 7월14일 53만5000t에 이어 역대 2번째를 기록했다.

9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49만8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47만2000t보다 5.51%(2만6000t) 증가했다.

요일별로는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토·일요일 감소했다가 월·화요일에는 주말보다 5~7%가량 늘고 있다. 섭씨 33도, 습도 77%였던 지난 5일을 지나면서 하루 50만t 이상씩 물이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물 사용량은 기온에 민감하며, 휴가철이 끝나 시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이번주부터 이달 말 내에 역대 최대 사용량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의 수백년 역사가 담긴 나무

"보호수를 지켜라"

市, 75그루 지정 조례 제정 추진

광주지역에 산재해 있는 수령 100년 이상의 보호수들을 지키기 위해 광주시가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들 보호수들은 노화는 물론 생육환경 악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보존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소유자가 다른 탓에 체계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고사하거나 보존가치를 상실한 수령 500년(추정)의 남구 송하동 버드나무(둘레 1.6m, 높이 14m) 등 4그루를 보호수에서 해제했다.

또 기존 보호수였던 수령 800년(추정)의 남구 칠석동 은행나무(둘레 4m, 높이 30m) 등 5그루는 좀 더 체계적인 보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광주시 기념물로 각각 지정했다.

여기에 최근 보호수 일제조사를 통해 수령 700년(추정)의 남구 도금동 느티나무(둘레 2m, 높이 2.5m) 등 14그루를 새롭게 보호수로 지정, 광주시의 보호수는 기존 70그루에서 75그루로 늘었다.

광주시는 이들 보호수들의 소유권이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문중, 마을 등으로 다양하고 특히 도심 내 보호수의 경우 공사나 자연재해로 인해 급격히 고사하고 있어 '광주시 보호수 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 주체의 명시, 수목 상태 점검 상시화, 수목 치료 절차 등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지 내 수령 300년의 은행나무 2그루(둘레 0.8·0.7m, 높이 20·18m)는 과거 지하철 1호선 공사 등으로 인해 잔뿌리가 잘리면서 가지 일부가 고사하거나 가운데 구멍이 패인 상태로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호수나 기념물 지정 수목은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관광자원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보호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남구 칠석동 120번지에 식재된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수령 800년의 은행나무.

과음, 후손 정자생산 악영향 식약청, 쥐 실험결과

과도한 음주는 후손의 정자 생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9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이 지난해 실시한 '알코올에 노출된 1세대 생식세포가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수컷 쥐에게 알코올을 경구투여한 결과 해당 수컷 쥐뿐 아니라 후손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주간 알코올을 꾸준히 먹인 수컷 쥐의 신장과 정소 무게가 각각 11.8%와 14.9% 감소했다. 또 알코올에 꾸준히 노출된 아버지 수컷 쥐의 정자 활동성은 정상군에 비해 25.8~43.8% 떨어졌으며 자식인 1세대의 정자 활동성도 정상군에 비해 10.7~11.5% 낮아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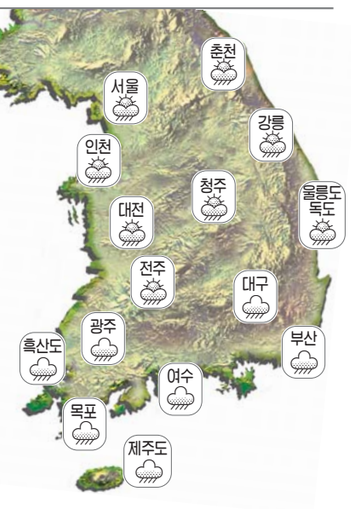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48분 해짐 19시 27분 / 달뜸 05시 39분 달짐 19시 21분

덴무의 비구름

태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광 주	흐리고 비	26/29℃
목 포	흐리고 비	26/29℃
여 수	흐리고 비	25/28℃
완 도	흐리고 비	25/29℃
구 례	흐리고 비	24/30℃
해 남	흐리고 비	25/30℃
장 흥	흐리고 비	25/30℃
고 흥	흐리고 비	25/29℃
순 천	흐리고 비	24/29℃
영 광	흐리고 비	25/30℃
진 도	흐리고 비	25/30℃
전 주	흐리고 가끔 비	25/30℃
남 원	흐리고 비	24/28℃
흑산도	흐리고 비	24/28℃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1.5~2.5m
먼바다	동~남동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2.0~3.0m
먼바다	동~남동	2.0~4.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2.0~3.0m
먼바다	동~남동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2.0~4.0m
먼바다	동~남동	3.0~4.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보통	경고	매우 높음

	밀물	썰물
목포	02:12 14:15	07:33 19:37
여수	09:03 21:36	02:58 15:0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날 씨						
최저/최고	26/29	26/31	26/32	26/32	26/33	25/32

증심사 지구 모 식당서 식사 후 복통

버스기사 5명 식중독균 검출

광주시 동구는 지난달 28일 무등산 증심사지구에서 점심 식사 이후 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던 시내버스 기사 16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5명의 기사에게서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달 30일 설사와 복통 증상을 보인 시내버스 기사 16명과 무등산 증심사지구 모 음식점 종업원 3명에 대한 가검물 검사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인 장독소형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식당에서 수거한 음식물·음용수·조리도구 등에 대한 식중독균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동구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광주 무등산 증심사지구 일대 식당 주인 등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경찰 협력단체 대폭 축소 유착 우려 26개→12개로

경찰청은 9일 경찰관과 유착이 우려됐던 각급 경찰관서의 협력단체를 26개에서 12개로 줄이는 등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을 유지하는 단체는 지역치안협의회와 경찰발전위원회, 생활안전협의회, 인권위원회, 전의경어머니회, 보안정책자문위원단, 보안협력위원회, 외사협력자문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확립추진위원회, 교통자문위원회 등 12개다.

경찰은 이들 단체 회원 가운데 업주나 선거 출마 예정자 등 경찰 업무와 연관이 있는 인사를 회원에서 배제하는 등 유착 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